

TV 9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감시자들**

**5일 만에 178만명 '돌풍'**

설경구·한효주·정우성 주연의 '감시자들'이 개봉 첫 주말 압도적인 점유율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감시자들'은 지난 5~7일 3일간 전국 947개 상영관에서 134만8649명(매출액 점유율 50.7%)을 모아...

돌풍을 일으켰다. 전주까지 2주간 1위였던 '월드워 Z'는 주말 3일간 전국 565개관에서 63만628명(23.8%)을 모아 한 계단 내려앉았다. 누적관객수는 427만7819명. 지난 4일 개봉한 조니 뎀 주연의 '론 레인저'는 400개관에서 20만7891명(7.7%)을 모아 3위로 출발했다. 이시영·염기훈 주연의 공포영화 '더 웹툰: 예고살인'은 348개관에서 19만2437명(6.9%)을 모아 그 뒤를 따랐다. 누

적관객수는 87만1207명. 김수현 주연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275개관에서 11만1394명(3.9%)을 모아 5위다. 흥행 기세는 꺾였지만 꾸준한 관객 몰이로 누적관객수 685만5560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널 테이텀 주연의 '화이트 하우스 다운'은 281개관에서 6만6543명(2.4%)을 모아 6위다. 누적관객수는 52만9899명. 이밖에 '콩후렌즈: 영웅의 탄생'(3만9609명, 1.3%), '맨 오브 스틸'(1만5620명, 0.6%), '쥬라기 공원'(1만203명, 0.6%), '크루즈 패밀리'(8863명, 0.3%)가 10위 안에 들었다. /연필뉴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건강한 아침', '한국기행', '도전! 직업체험' etc.

Table listing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기분과 특별한', '내신 6급', '고급강 강림 #포스' etc.

**“아이돌 출신이란 오해 기분 좋죠”**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문제아 고성민 역 김가은**

아이돌 가수 출신 배우가 넘쳐나는 요즘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문제아 고성민은 아이돌에 어울릴 법한 캐릭터다. 요란한 염색 머리에 통통 튀는 성격이 아이돌의 이미지와 겹쳐지기 때문. 신예 김가은(24·사진)이 종종 아이돌 출신으로 오해 받는 이유다. 김가은은 "아이돌 출신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다"며 밝게 웃었다. 그는 "예쁘고 연기 잘하는 아이돌이 많은데 나도 그렇게 봐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내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것도 좋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돌처럼 보이지만 김가은은 여전한 공채 탤런트 출신이다. 국민대 연극영화학과 재학 중이던 2009년 S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10여 편의 드라마에서 단역을 거친 그는 2011년 드라마 '브레인'과 작년 '내 사랑, 내비부인'을 거쳐 최근 '장우정, 사랑에 살다'로 얼굴을 알렸다. 그는 "중성기가 장난기가 많고 나와 동갑이라 빨리 친해졌다"며 "첫 촬영이 수하가 성빈을 구해주는 장면이었는데 중성기가 말을 놓으면서 편하게 대해줘서 긴장감을 덜

우에게 맡기려 했던 역할이었는데 오디션에서 돼서 정말 기뻐요. 처음 대본을 읽을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거든요." 김가은은 성빈을 두고 "솔직한 아이"라며 "살으면 살든 티를 내는 아이다. 짝사랑을 하더라도 주변 친구들이 다 알 정도로 감정에 솔직하다"고 설명했다. 성빈을 연기하면서 김가은은 많은 것을 처음 경험했다. 노란 염색 머리로 처음 나왔고, 연기하면서 욕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대본에는 그냥 엑스(X)로 표시돼 있었지만 오디션 때는 진짜 욕을 했어요. 감독님이 성빈이는 어차피 그런 애니까 욕을 더 잘해야 한다고 하셔서 욕 연구를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죠. 그런데 처음 선배님들과 대본 연습을 할 때는 난감했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욕을 해야 했으니까요. 요새는 대본에 욕이 없으면 허전해요.(웃음)" 성빈을 두고 '수하 바라기'라고 칭한 그는 '내 친구들은 중성 바라기'라며 요즘 '대세'로 떠오른 이종석의 인기를 실감했다. 그는 "중성이가 장난기가 많고 나와 동갑이라 빨리 친해졌다"며 "첫 촬영이 수하가 성빈을 구해주는 장면이었는데 중성이가 말을 놓으면서 편하게 대해줘서 긴장감을 덜



고, 금방 몰입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차근차근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는 그지만 어린 시절에는 가수를 꿈꿨다.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또래들처럼 장기자랑에 나가고, 기획사 오디션에도 참여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호기심에 연기학원에 다녔다. 그때 처음 본 연극 공연이 그에게 배우라는 새로운 꿈을 심어줬다. /연필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음 8월 2일 丙子)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9th of July,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TV 하이라이트**

Three columns of TV highlights: 8살 동갑내기 동물 농장 체험, 예체능 팀의 배드민턴 도전기, 하도급 업체의 위험한 작업. Each column includes a small image and a brief description of the program.